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자체 힘 모은다

순천·목포·광주 남구 등 8곳
20일 광주서 지방협의회 출범
아시아 선교문화 첫 등재 도전
지역 국제 관광 브랜드로 발전

전라남도 순천시와 목포시, 광주광역시 남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와 목포시, 광주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김제시 등 전국 8개 지자체단체에서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20일 광주 양림동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광주 양림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8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

을 모으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고, 국내에 전파된 개신교 유적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도 전국 각지의 선교기지가 잘 보존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기독교 선교문화가 전파됐으나, 유산의 성격을 가장 잘 지키면서 신앙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조성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순천선교부는 1913년 설립돼 교

육·의료·복음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 와츠 기념관,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등 13개의 유산이 남아 있어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선암사)’, ‘한국의 갯벌(순천갯벌)’과 연계함으로써, 순천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김재철, 전남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 지정

송천달집태우기… 순천시 최초

순천시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송천달집태우기’의 예능보유자 김재철(사진) 선생이 전남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송천달집태우기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대나무와 생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달집에 불을 놓아 한해의 액운을 불사르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의 세시풍속 행사다.

김재철 옹은 송산마을 출신으로 달집태우기의 명맥을 계승하고자 1987년 6월 마을 단위 민속단체인 송천달집태우기보존회를 조직해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존회를 오랫동안 지도하며 1987년 남도문화제(제16회)와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제29회)에 참가해 최우수



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송천달집태우기가 199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24호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통무형유산의 가치를 보존·전승하고자 후계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는 고령(1932년생)으로 전수교육일선 현장에서 몰라난 김재철 선생을 예우하고자 그간의 전승활동 업적 등을 심사해 명예보유자로 지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송천달집태우기의 유산가치에 관심을 갖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재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송천달집태우기가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가지 곳곳 열대풍 거리 조성… 도심 속 정원 선사

12개소에 20여종 열대식물

전라남도 순천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잊게 할 ‘열대풍 거리’를 시가지 곳곳에 조성해 도심 속 청량감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조성된 열대풍 거리는 국가정원 동문, 시민로, 순천역 등 총 12개소로, 파파야, 자색바나나, 칸나 등 20여종의 열대식물을 활용해 이국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다층식재 기법을 적용해 직립형 꽃, 덩굴식물, 관엽식물을 층별로 입체감 있게 배치하며 풍성한 거리 경관을 구현했다. 폭염과 장마에 강한 품종을 중심으로 식재해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다.

이외에도 시는 도심 내 주요 도로변과 교량 난간 등 19개소에 약 2000개의 대형 화분 및 난간걸이 화분을 설치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꽃이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 조성된 열대풍 거리.

순천시 제공

순천시 관계자는 “열대풍 거리는 도시에 시원함과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초화류를 활용한 정원 조성으로 정원 도시 순천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서면 구만회통길에 위치한 꽃육묘장에서 초화류 15만본을 직접 생산·공급해 열대풍 거리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화훼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4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2025 순천 비어페스타에서 ‘청림이 꽃피는 정원도시 순천’을 주제로 한 청림홍보 부스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찾아가는 청림 홍보 부스 운영

청림문화 확산·지역사회 소통 강화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14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2025 순천 비어페스타에서 ‘청림이 꽃피는 정원도시 순천’을 주제로 청림홍보 부스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림 홍보부스는 지역 축제를 즐

기기 위해 모인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청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를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림서약서 작성 △청림 인증샷 SNS 이벤트 △청림 OX 퀴즈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청림을 보다 친숙

하게 접하고 직접 체험,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림은 공직자만의 덕목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서 청림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다”며 “청림 문화 확산 캠페인과 청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청림 시책을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림 순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130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전라남도 순천시는 6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0만4000여대로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1856대 증가한 15만8000여대이며, 이중 중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올해 연납(선납) 차량은 과세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3% 납

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방송과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